

‘버스정류장 앞 아찔’ 광주 지하철 공사장 보행자 안전 우려

2호선 공사로 임시 정류장 차도에...안전 시설물은 미흡
 차도 줄어들고 복잡...서행하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도
 “보행자 안전 위해 신호수 배치·감속 안내판 설치 필요”

“임시 정류장 앞으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아찔하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내 임시 정류장과 횡단보도 안전장치가 미흡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도시철도 2호선 4공구 공사장. 공사가 갓길에서 진행돼 시내버스 임시 정류장이 도로 가운데에 자리했다. 인도에서 임시 정류장으로 향하는 50m 구간 중 절반은 보행자와 차도를 나누는 가림막이 설치됐지만, 반은 뺏겼다.

시민들은 별도 안전장치 없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정류장 근처엔 노선 관망 설치돼 있을 뿐 반경 50~100m 구간엔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는 안내판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민들은 내달리는 차량을 피하려고 1m 간격을 두고 뒤로 바짝 붙어 섰다. 한 노인은 버스가 오는지 살피기 위해 도로 쪽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지만,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치자 순간 움츠러들었다.

한모(32·여)씨는 “해당 정류장은 시정과 충장로 같은 주요 도심을 거치는 버스가 지나가는데 주변 아파트가 있어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며 “이용객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지하철 공사 현장인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정문~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정류장 구간에서도 무단 횡단을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졌다. 해당 400m 대로 구간은 중·고등학교 4곳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학교 시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횡단보도 3

곳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공사로 8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줄어든 데다 퇴근길 차량 정체도 이어졌다. 일부 보행자들은 이따금씩 서행하는 차량을 가로질러 무단 횡단을 시도했다.

한 학생은 초록불을 3초 남기고 횡단보도 횡급히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자 공사 구간 한 가운데에 멈춰 서기도 했다.

공사장 주변엔 ‘버스 전용 차로 임시 폐쇄’ 등 차량을 위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을 뿐, 보행자를 위한 안내판은 드물었다.

주변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15)양은 “버스를 놓칠 것 같을 때 빠르게 길을 건너 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차량 통제 구간엔 잠깐 멈춘다”며 “이후 눈치를 살핀 뒤 물러 길을 건너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통경찰 배치와 신호수 확대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카페 사장 김모(43)씨는 “공사 이후 차도가 좁고 차선이 복잡해 차량들이 서행하는 반면, 무단 횡단 횡수는 부쩍 늘었다”며 “무단횡단 금지’ 문구 등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통경찰 상시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21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 마련된 임시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22일 “출퇴근 시간 일부 대형 교차로엔 신호수가 배치되지만, 공사 구간이 넓어 모든 지역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행자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판 또는 인력

배치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6공구 공사 공정률은 약 30%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광주 요양병원용 4차 백신, 대량 폐기 위기

1만6000명 대상자 중 고작 35%만 접종...유통기한 이번 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물량의 상당량이 유통기한에 쫓겨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역 내 요양병원·시설 환자와 종사자 등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 가운데 35%에 불과한 5800여 명만이 4차 백신을 마친 상태다.

10명 중 7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지만 남은 물량은 상당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질병청이 제공한 백신의 유통 기한이 이번 주까지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4차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들었다. 확진자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처분을 받은 병동 입소자와 관계자들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지침상 이들은 4차 백신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4차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긴 점도 낮은 접종률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은 보건소로 돌려보내진 백신의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유통기한이 끝나는 이번 주까지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남진기자

‘러-우크라이나 사태 한 달’ 광주·전남기업 10곳 중 6곳 피해

대금결제·물류·공급·자금조달 애로
 피해기업 76.5% “대응책 마련 못해”
 피해보상·현지정보·자금지원 등 시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경영 애로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러-우 사태’에 따른 기업 영향 모니터링’ 결과, 광주·전남 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광주·전남에 소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수출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금형, 철강·금속, 고무·플라스틱 업종이 주를 이뤘다. 조사결과 대상 기업의 56.7%는 러-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3.3%는 ‘피해가 없다’고 응답했다.

피해 기업들은 주로 대금결제 지연·중단, 물류·공급 차질, 자금조달 애로 등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중단 또는 거래 위축,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입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7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황 안정 시까지 거래 중단·보류’(29.4%), ‘바이어·공급선 다변화’(17.6%), ‘충분한 재고 확보’(5.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태 장기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재’(56.7%), ‘거래 위축’(53.3%)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대금결제 지연·중단’(43.3%), ‘물류난·물류비 증가’(26.7%), ‘유가·국제원자재 가격 상승’(26.7%), ‘환율 변동성 리스크 확대’(23.3%), ‘부품조달 애로’(13.3%)를 걱정했다. 러-우 사태 대응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는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46.7%), ‘경영안정 자금 지원’(40.0%), ‘수출입 기업 피해보상’(33.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이번 사태 피해 기업들은 ‘수출입기업 피해 보상’(58.8%)과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58.8%)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은 ‘경영안정 자금 지원’(38.5%)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2021년 기준 광주의 대 러시아 수출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로 지역 전체 수출액(166억달러)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83.2%가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로 파악됐다. 대 우크라이나 수출액은 6억 200만 달러에 주요 수출품은 고무제품(46.8%)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우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대금 수급문제와 유가·원자재가 불안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